

번호: PO-EP-042					
제 목	춘천시 중년 및 노인에서의 고혈압 인지, 치료, 조절과의 관련요인: 한림노년연구 Awareness, treatment, control and related factors of hypertension in Chunchon adult population: Hallym Aging Study				
저 자 및 소 속	정진영1), 최용준2), 장숙량1), 홍경순3), 최영호3), 강성현4), 최문기3), 신해림5), 김동현2) 1)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2)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4)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5)국립암센터 Jinyoung Jeong1), Yongjun Choi2), Soongnang Jang1), Kyungsoon Hong3), Youngho Choi3), Sunghyun Kang4), Moongi Choi3), Hairim Shin5), Donghyun Kim2) 1)Hallym Institute of Aging Research, Hallym University, 2)Dept. of social and preventive Medicine,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3) Chunchon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4) Institute of Hallym Service Research Center, Hallym University, 5) National Cancer Center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배경: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이환과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혈압의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를 위해 고혈압의 유병률 뿐아니라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p> <p>방법: 2004년 1월-7월에 실시된 춘천시 만성병 역학조사에 참여한 9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혈압은 숙달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한 후 수는 혈압측정기로 우측 상완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각 2회씩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혈압검사와 고혈압진단유무에 모두 응답한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된 혈압은 JNC7의 기준에 의해 정상혈압과 고혈압으로 분류하였고, 측정 혈압과 관계없이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군으로 분류하여 유병률을 산출하였다. 고혈압군 중 조사 이전에 고혈압을 진단 받은 경우를 인지군으로, 인지군 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를 치료군으로, 이들 중 측정혈압이 JNC7의 기준에 의해 정상인 경우를 조절군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은 SAS VER 8.1을 이용하였다.</p> <p>결과: 전체 연구대상자는 855명으로 남자가 353명(41%) 여자가 502명(59%)이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45-64세가 58.9% 65세이상은 63.6%였고, 여자는 53.1% 65.2%로 45-64세에서는 남성이 65세이상에서는 여성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2000년도 전국인구로 직접표준화하여 산출한 연구대상자의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58.7%, 여자는 56.7%이었다. 고혈압군 중 인지율은 54.2%이었고, 그 중 87.1%가 치료받고 있었으며 52.2%가 정상혈압으로 조절이 되고 있었다. 성별로 분리한 결과 남성에서의 인지율은 51.4%, 치료율은 84.1%, 조절율은 64.2%이었고, 여성에서는 각각 56.1%, 89.2%, 44.8%로 나타났다. 인지율과 치료율은 여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조절율은 남성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인지율에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해 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흡연을 하는 경우(과거흡연 OR=1.7 95% CI 1.0-2.9, 현재흡연 OR=6.5 95% CI 3.5-12.0), 고혈압가족력이 있는 경우(OR=2.3 95% CI 1.3-4.0), 최근 2년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OR=2.6 95% CI 1.8-3.9), 그리고 자가평가건강수준이 낮은 경우(OR=1.8 95% CI 1.1-3.0)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 <p>결론: 고혈압 유병률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혈압 인지율과 조절율은 여전히 'Rules of halves'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고혈압관리를 위해 인지율, 치료율, 조절율의 개선이 요구된다.</p> <p>key word; hypertension, prevalence, awareness, treatment, control</p>					